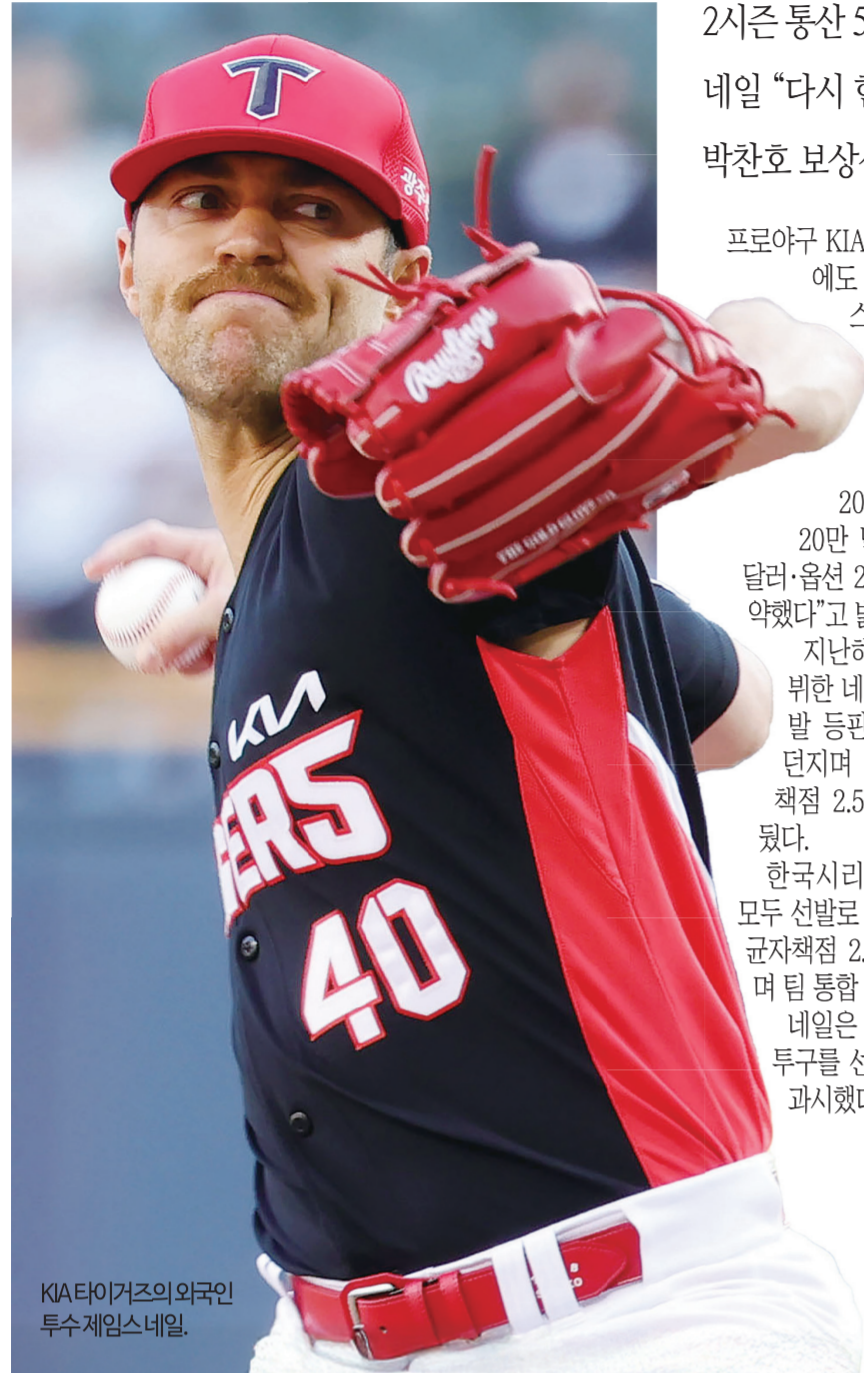


KIA, '외인 에이스' 네일과 200만 달러에 재계약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

2시즌 통산 53경기 20승 9패 평균자책점 2.38 기록
네일 "다시 한국시리즈 우승 위해 최선 다하겠다"
박찬호 보상선수는 두산 '우완 유망주' 홍민규 지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내년에도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에게 에이즈 임무를 맡긴다.
KIA는 26일 "네일과 총액 200만 달러(계약금 20만 달러·연봉 160만 달러·옵션 2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KBO리그에 데뷔한 네일은 26경기에 선발 등판해 149⅓이닝을 던지며 12승 5패 평균자책점 2.53의 호성적을 거뒀다.
한국시리즈에서는 2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 1승 무패 평균자책점 2.53으로 맹활약하며 팀 통합 우승에 일조했다.
네일은 올해도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는 27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전해 164⅓이닝을 소화하며 8승 4패 평균자책점 2.25를 기록, 제 역할을 다했다.
2시즌 통산 53경기에서 20승 9패 평균자책점 2.38로 활약한 네일은 KIA와 다시 손을 잡으면서 3년 연속 동행이 확정됐다.
네일은 "좋은 제안을 보내준 KIA 구단에 감사하다. 언제 어디서나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타이거즈 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 것이고, 팀 동료들과 합심해 광주에서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IA는 같은 날 두산과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은 박찬호의 이적 보상선수로 투수 홍민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우완 투수인 홍민규는 올해 야탑고를 졸업, 2025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6순위로 두산에 입

단했다.
지난 4월4일 사직 롯데 자이언트전에서 구원 등판해 1이닝 무실점으로 데뷔전을 장식한 홍민규는 2025시즌 20경기에 나서며 33⅓이닝 2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59의 성적을 남겼다.
특히 시즌 초반 힘든 시기를 보내던 두산 마운드에 큰 힘을 보태며 이승엽 당시 두산 감독은 "홍민규는 지금 우리 불펜진에서 가장 안정감 있다. 모든 구종을 스트라이크로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아울러 홍민규는 지난 9월 중국에서 열린 2025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3경기에 등판해 9⅓이닝 2승 무패 6탈삼진 평균자책점 0.00의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
KIA 관계자는 "올 시즌 데뷔한 신인 선수이지만 지금까지 등판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우수한 제구력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선발 자원으로도 기대하고 있다"며 선택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속구의 수직 무브먼트 수치가 리그 평균 이상이며, 체인지업의 완성도도 높아 향후 투수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좌측 두번째부터 차례대로 고흥군청 태권도팀 오인성 선수,이경택 선수,이의현 선수, 고영훈 선수.

고흥군청 태권도팀, 실업최강전서 '값진 메달'

남자 3인조·5인조 단체전서 각각 동메달 획득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 한국 실업최강전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고흥군청 태권도팀이 남자 3인조와 5인조 단체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전국 20개 실업팀 소속 선수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해 ▲남·여 개인전(제급별 겨루기)과 ▲3인조·5인조 단체전 등에서 기량을 겨뤘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치열한 예선과 준결승전을 거쳐 끝까지 투혼을 발

휘하며 단체전 3인조와 5인조 경기에서 연속으로 동메달을 획득하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청 태권도팀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에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노력으로 고흥군의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오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경남 창원군에서 개최되는 '2025년도 전국 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전남교육청, '제50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초·중·고 희망 학생 2600명 참여
검도·사격 등 28개 종목서 '열전'

제50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가 최근 전남 일원에서 도내 초·중·고 희망 학생 2,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2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50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검도·사격·씨름 등 총 28개 종목이 진행됐으며 학교운동부 소속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일반학생도 참가했다. 각 종목 경기는 전남 곳곳의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됐으며, 학교와 경기단체의 협조로 안전한 대회 환경을 갖췄다. 특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 방식과 종목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기존 대회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힌다.
또한 축구, 태권도 등 10개 종목은 내년 열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라남도 대표 선발전전을 겸했다. 이를 통해 경기력



별교생태공원축구장에서 '제50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확인은 물론, 학생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지역 단계에서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교 스포츠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재능 확장을 돕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쌓고, 스포츠

를 통해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동부 지원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강화, 안전 기반 강화 등 후속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수 기자

함평의 밤, 빛의 향연!

2025 함평 겨울빛축제

2025 Hampyeong Winter Light Festival

2025. 11. 28. (금) 16:00
2026. 1. 11. (일) -21:00

함평엑스포공원 및 읍 시가지 일원

홍명보 감독, 내달 6일 북중미월드컵 조추첨 참관

한국 축구 사상 첫 포트2 배정...다만 포트3도 만만치 않아

한국 축구가 다음 달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추첨에서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포트를 확정할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조추첨을 참관하러 출국한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12월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중미월드컵 조추첨이 진행되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한국 시간으로 내달 6일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조추첨식에 참석한다.
FIFA는 이날 내년 북중미월드컵 조추첨 포트를 발표했다.
FIFA 랭킹 22위인 한국은 사상 최초로 포트2에 포함돼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세네갈,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등을 피하게 됐다.

다만 포트3 팀들도 만만치 않다. 노르웨이,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홍 감독은 조추첨을 마친 뒤 베이스캠프 후보지와 조별리그 경기장을 둘러 보고 귀국한다.
한편 홍명보호는 그동안 월드컵이 열리는 해 겨울마다 치러온 동계 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파 소집이 불가능한 데다, 국내 파는 시즌을 마친 뒤라 부상의 위험이 있다. /뉴시스

김연경 다음은 서장훈... "열혈농구단 진정성 봐달라"

한샘타이거즈 이후 5년만에 농구 예능으로 돌아와

농구스타 서장훈이 5년 만에 감독으로 나선다. SBS TV '진짜 농구, 한샘 타이거즈'(2000)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엔 각자가 남다르다. 최근 MBC TV '신인감독 김연경'이 인기리에 막을 내렸는데, 열혈농구단이 바통을 이어 받을 수 있을까.
서장훈은 26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열혈농구단' 제작발표회에서 "5년 전 한샘 타이거즈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아쉬

움이 있던 차에 서현석 PD가 '같이 한 번 해보자'고 했다. 농구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선수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며 "1년 전 처음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공교롭게도 스포츠 예능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 하게 됐다. '조금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서장훈이 '라이징 이글스' 감독을 맡고, 전태풍이 코치로 활약한다. 여기

에 그룹 '사이니' 민호가 주장으로 나서고, '2AM' 정진운, 'NCT' 차니, 배우 오승훈, 박은석, 김택, 모델 문수인, 이대희, 가수 손태진, '환승연애2' 출신 정규민, 농구선수 출신 캐스터 박찬웅 등 총 11명이 함께 된다.
이미 지난달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연예인 올스타 농구팀(Kuys Showtime)과 첫 원정 경기를 마친 상태다.
서장훈은 "진심으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장하고 결국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게 목표다. 나와 선수들의 진정성을 봐달라"고 말했다. /뉴시스